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VI. 종합의견	12

도미니카 공화국

I. 일반개황

면적	49천 Km ²	GDP	459억 달러(2008년)
인구	9.50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4,830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Dominican Peso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34.60(2008년)

-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히스파놀라 섬 동부 2/3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구 9.5백만 명, 1인당 GDP 4,830 달러의 중소득국임.
- 2003-04년에 국내3위 은행의 파산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2004년 8월 페르난데스 신정부 출범 이후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가, 관광업 호조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음.
- 2008년 5월 대선에서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었으나, 내수 경기 위축, 실업률 및 물가 상승, 치안 불안, 부패 스캔들 지속 등으로 인해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1.3	9.3	10.7	8.5	4.5	-1.0
재정수지 / GDP	-3.1	-0.7	-1.2	0.4	-3.1	-3.7
소비자물가상승률	51.4	4.2	7.6	6.1	10.6	1.4

자료 : EIU

□ 2007년 이후 고성장세 둔화 전망

- 2005-06년에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관광산업, 통신업 등 주력산업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9.3%,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도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니켈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10%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0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Noel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은 8%로 다소 낮아졌음.
- 2008년에는 인플레이 우려와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전력난 지속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세는 4%대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둔화, 외국인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하락으로 물가는 크게 개선

- 10% 미만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폐소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해 급상승하여 2004년에는 51.4%까지 치솟았음.

- 그러나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통화정책 및 정부의 안정된 거시경제 운영에 힘입은 환율안정세 회복으로 2005년에는 4.2%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2006년에도 정부의 긴축통화정책 지속과 환율안정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6% 상승에 그침.
- 2007년에는 폐소화 강세와 DR-CAFTA(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로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억제목표인 6%에 근접하였으나, 국제유가와 식품류 가격 상승 지속으로 인해 2008년 물가상승률은 10.6%로 급상승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공공요금 인하, 상대적인 폐소화 강세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 적자 전환

- 2005년에는 세계개혁 및 공무원 임금 축소, 전력/LPG 보조금 삭감 등의 긴축정책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0.7%로 축소되었으나, 2006년에는 총선과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수도의 지하철 공사, 전력/LPG에 대한 정부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1.2%로 소폭 증가함.
- 2007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 지속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 들어 대선에 따른 선심성 지출 확대, 전력, 교통 등 정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1년만에 적자로 반전되었음.
- 2009년에는 대외지급 이자 규모 증가, 국가경제회의(national summit) 결과 이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의 3.7%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대외경제여건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자유무역지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 전통 수출품목은 설탕, 담배, 커피, 광산물(페로 니켈 등) 1차산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변동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및 기후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만성적인 전력난 지속

- 도미니카는 지난 30여년간 만성적인 전력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로 정전이 일상화되어 있는 등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음.
- 1999년에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국영전력공사(CDE)를 분리하여 수력발전회사, 송전회사, 기술지원회사를 제외하고 2개의 화력 발전회사와 3개의 배전회사를 민영화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전력난은 해소되지 못함.
- 배전회사의 잦은 배전 중단으로 인해 단전 사태가 빈발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유혈 소요사태로 번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 단전사태는 발전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배전망이 노후하여 전력손실률이 60%에 이르며, 정부기관을 포함한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배전회사가 발전회사에 전기요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겹쳐 발생한 것임.
- 배전회사와 도미니카 정부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3년 9월에 Union Fenosa가 운영중인 2개 배전회사(Edesur, Edenorte) 지분을 재매입하여 배전회사를 再국영화하였으나, 여전히 전력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 2008년 도미니카(공) 전력청 자료에 따르면, 전력 손실률은 38%에 달하고 주로 도전(theft), 기술적 결함 등으로 구성되어 전력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대체 수출 산업 선정 지연

- 1990년대 후반 도미니카(공)은 대미 의류수출 메카로서 의류업이 주력 수출산업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 들어서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카리브 국가에 대한 의류 쿼터가 없어지면서 의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IT, 담배, 과일 및 광물 자원(니켈) 등이 후속 주력산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수출금융 및 체계적인 수출진흥정책 미비로 2008년부터는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진흥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 IMF가 제시한 경제지표 달성

- 2006년 도미니카 경제성장률은 중남미 국가 중 최고수준이었던 10.7%로 IMF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 4.5%를 크게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인플레이션도 IMF 목표치인 15%를 크게 하회하는 7.6%로 낮추었음. 2007년에도 8.5%의 고도성장과 6.1%의 양호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외환보유액도 2003년 2.5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5.5억 달러로 10배 이상 급증함.

□ 산업다변화정책 추진중

- 도미니카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현재의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등)에서 IT 등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수도 산토도밍고 외곽에 국내외 자본을 동원하여 'Cyber Park'라고 명명된 IT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1,041	-473	-1,312	-2,067	-4,438	1,866
경 상 수 지 / G D P	4.8	-1.4	-3.7	-5.0	-9.7	-4.5
상 품 수 지	-1,952	-3,725	-5,564	-6,437	-9,171	-6,546
수 출	5,936	6,145	6,610	7,160	6,611	5,340
수 입	7,888	9,869	12,174	13,597	15,782	11,885
외 환 보 유 액	798	1,843	2,116	2,546	2,272	n/a
총 외 채 잔 액	7,305	7,756	8,905	10,430	11,270	11,665
총 외 채 잔액 / GDP	33.8	23.1	25.0	25.4	24.6	28.1
D. S. R.	6.8	6.1	9.3	9.8	11.3	13.9

자료 : EIU, IFS

□ 경상수지 악화 추세 지속

- 2005년에는 내수회복과 투자증가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가 37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GDP의 1.4%인 5억 달러)로 반전되었으며, 2006년에는 경기회복과 폐소화의 상대적 강세로 인한 수입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약 13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2007년에는 대미수입 증가 및 DR-CAFTA 국가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5.0%인 약 2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에도 수출감소,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9.7%로 대폭 확대됨.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안정세 회복

- 폐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02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04년에는 한 때 달러당 50페소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 페르난데스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말에는 30페소 수준까지 회복하였음.

- 2006-09년중 달러당 페소화 환율은 33-35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 등으로 달러당 페소화 환율이 40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외채구조 및 원리금 상환부담 양호

- 총외채는 GDP 대비 30% 미만의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이후 환율인상으로 인한 달러표시 GDP 감소와 외채 증가로 동 비율이 33.8%까지 상승함.
- 2005년 들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경제도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표시 GDP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08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비중은 24.6%로 크게 낮아졌으나, 2009년에는 28.1%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외채는 총 외채의 25-3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D.S.R이 10%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동성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

- 자유무역지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청을 설립, 운영중임.
- 도미니카(공)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및 경기회복, DR-CAFTA의 발효 등으로 인해 2008년 FDI는 사상 최대치인 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스페인의 경기침체로 9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 2004년 8월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3월 발효됨. 본 협정의 발효로 FDI 유입 증대되고 있으며, 심화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구조를 한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미니카(공)은 자유무역지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청(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CEI-RD)을 설립 운영중임.
- DR-CAFT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사상 최대치인 2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FDI가 다시 호조를 보이고 있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페르난데스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2004년 경제위기 극복

- 2004년 5월 대선에서 민족해방당(PLD)의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가 당선되어 8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996-2000년에 대통령 직을 역임했었으며, 2004년 재집권 후 경제안정화, 재정수지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정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빠른 경제회복세, 물가 및 환율 안정세 회복 등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왔음.

□ 2008년 5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의 재집권 성공

- 2008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페르난데스의 재선이 확정되었으며 동년 8월 취임함. 제1기 정부 시기와 비교해서 당초 공약과 달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치안 불안과 PLD당내의 부패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어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1월 28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제위기 타파, 산업발전, 신용경색 해결 등을 위해 국민의회(National Summit)가 개시되었으나, 의회와 일부 사회단체의 참여 거부 등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미, 미국, EU 등 전방위 실리외교정책 시행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임대통령 집권 당시 악화되었던 대미관계 회복에 힘써 2004년 8월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수출 진작 및 FDI 유입 활성화를 위해 EU 및 남미국가들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인접국가 중 아이티와 국경분쟁 및 불법이민자 문제로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협력 및 국경무역의 단속 등에서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힘입어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부터 동국 석유수입량 중 40% 이상을 국제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확약을 얻어내기도 함.

2. 사회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가 문제, 급격한 소요가능성은 희박

- 사회적으로는 그 동안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고 빈부격차의 정도가 심하며 소수 백인과 기타 인종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후진국의 전형적인 패턴인 이중사회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소요나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2007년 OECD는 도미니카(공)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였으나, S&P와 Moody's는 도미니카(공) 정부가 IMF 협상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점을 들어, 동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그러나 2008년 12월, S&P는 미국 및 유럽 경기 침체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축소 전망,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반전, 인플레이 우려 등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등급으로 한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OECD : 5등급 ('06. 6) → 5등급 ('07. 6) → 5등급 ('08. 6)

* S&P : B ('05. 6) → B+ ('07. 9) → B+ ('08. 12)

* Moody's : B3 ('06. 10) → B2 ('07. 5)

* Fitch : B ('06. 5)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 US EXIM : 한도범위내 인수가능
- *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잇따른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로 외채상환부담 감소

- 1986년 이후 1991년까지 단기외채를 제외한 중장기외채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IMF를 비롯한 채권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91년과 '94년에 파리클럽 및 상업채권단과 총 21.4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 2004년 4월에도 파리클럽과 2004년 만기도래하는 2억 달러에 채무재조정에 합의하여 채무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음.

□ IMF 차관지원 재개 및 채권스왑 완료

- Baninter의 파산과 환율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2003년 8월 6억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IMF 대기성 차관을 도입하였으나, 전력배전회사의 재국영화 결정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04년 1분기의 재정적자가 목표치를 초과하자 IMF는 차관 집행을 중단하였음.
 - 그러나 '04년 10월의 세계개혁안 가결 및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IMF와의 협상이 급진전하여 '05년 1월 6.65억 달러 규모의 28개월 만기 차관을 재도입하는데 성공하였음.
 - 또한 페르난데스 정부는 파리클럽 및 IMF 협상의 일환으로 국제상업은행들과의 채무재조정 협상도 진행하여, '05년 5월 채권자의 93%가 참여한 가운데 총 11억 달러 규모의 채권스왑에 성공하였음.
 - 원리금의 명목가치를 삭감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해주는 방식의 동 채무재조정에 따라 2006년 만기예정인 5억 달러의 채무 및 이자비용 1억 달러 상환을 유예하여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도미니카(공) 정부는 IMF와 PPM(Post Program Monitoring) 프로그램을 2008년 8월 이후 추진중이며, 최근 IMF는 고폐소화 정책을 변경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변동환율제를 권고한 바 있음.
- * PPM : IMF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IMF로부터 도입한 차관 잔액이 대출 쿼터액을 초과하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PPM 프로그램에 따라 IMF는 정기적으로 도미니카(공)을 방문해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나 정식 프로그램과 달리 도미니카 경제정책을 IMF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필요는 없음.

□ 외환보유액 대폭 증가

- 2003년에 환율불안과 자본도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나, 최근 들어 경제안정 및 성장세 회복으로 외환보유액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 7.9억 달러에서 2008년 말에는 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외환유동성 위험도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당분간 외환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IMF).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8년 대 도미니카(공) 교역, 흑자 반전

- 우리나라의 대도미니카(공) 수출은 2002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2년에는 1억 8,50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3년 도미니카(공)의 경제위기로 2004-05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바 있음.
- 2004년 이후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에는 니켈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규모 확대로 3년만에 적자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에는 교역규모가 2.2억 달러에 달하고 아연강판,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36백만달러에 달하였음.

VI. 종합 의견

- 도미니카(공) 경제는 물가와 환율 안정, 수출과 내수 경기 동반 회복 등에 힘입어 2006년과 2007년 중남미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미국 및 유럽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과 관광업이 부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사회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 8월 페르난데스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및 물가 상승, 집권당의 부패스캔들 발생, 치안불안 등으로 인해 정책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IMF와의 차관협상 타결 및 국제상업은행과의 채무재조정 성공 등에 힘입어 외채상환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2008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의 10%에 달하고 재정수지 역시 적자로 전환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CI에서 C2로 한단계 하향조정코자 함.

문의 : 책임연구원 최성규(☎3779-6662)

E-mail : ppio93@koreaexim.go.kr